

##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 주관총회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 제1회 한,일,미 기독교청년미래지도자대회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우리 교회는 기독교청년들의 영적 각성과 시대적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오는 8월 22일(목)부터 27일(화)까지 제1회 한·일·미 기독교청년미래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다가오는 2천년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서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우리 교회는 에베소서 3장 7절을 주제성구로, 찬송 355장을 주제찬송으로 정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

꾼이 되었노라”라는 주제와 “비전 2000”이라는 표어 아래 대회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이 대회 동안에는 이종윤 위임목사가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청년층에 기도운동을 확산하게 되고, 영성훈련을 위하여 요시모찌 아끼라 목사, D. 린튼 목사, 김창인 원로목사, 이종윤 위임목사를 모시고 네 차례의 저녁부흥회(눈물의 성회)를 갖는다. 아울러 노봉린 목사, C. 더나후 박사, 김상복 목사, M. 넬슨 목사의 특별 강의도 있다.

참가 예상 인원은 한국이 백명, 일본과 미국이 각각 오십명씩이며, 등록비는 3만원(미화 40불, 일화 5천엔)이라고 한다.

제1회 한·일·미 기독교청년미래지도자대회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하여, 교회는 8월 19일(월)부터 31일(토)까지 특별새벽기도회 “비전2000년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도”라는 표어 아래, 개최될 이 새벽기도회에 충현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선생님!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놓고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은 옆에서 보기만해도 대견스럽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뿐 아니라 약한 양들을 든든히 세우고 강한 이들에게는 절제를 배워줘 성숙으로 이끄시는 선생님의 헌신과 예지에 다시 감복하며 감사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장을 가지시고 이 일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만 학생 전원이 거듭난 인간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흥미있는 교육 내용을 전개한다 해도 거듭나는 변화가 없다면 교회 교육은 목적을 다한 것이 못될 것입니다. 아울러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열매 맺는 천국시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온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의 후원과 물질적 뒷받침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부디 힘 내시고 좋은 결실 많이 맺어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7. 7

이 종 윤 목사

## 여름 성경학교 및 수양회 행사 개요

지난 6월 6일 새가정부(부장 최상규 장로, 지도 최인근 목사)가 91년 들어 첫번째로 여름 수양회를 가진 이후, 교회학교 각 부서는 여름 성경학교 및 수양회

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계절학교는 학생들이나 회원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인간, 성

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각 부 성경학교 및 수양회 일정은 아래와 같다.

| 부별      | 구분 | 실시일     | 주 제                  | 주제성구     | 주제찬송          | 강 사      | 장 소          |
|---------|----|---------|----------------------|----------|---------------|----------|--------------|
| 영 아 부   |    | 7/17~18 | 감사의 생활               | 살전5:18   | 기쁘게 찬송부르자     | 정연희      | 아멘홀          |
| 유 치 부   |    | 7/16~18 | 용서의 얼굴               | 막2:5     |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죠 | 김정자      | 소석관 201호     |
| 초 등 1 부 |    | 7/16~18 |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 시37:4    | 300장          | 정인선      | 소석관 107,212호 |
| 초 등 2 부 |    | 7/16~18 | 용서의 마음               | 렘4:32    | 270장          | 황정순      | 소석관 314호     |
| 초 등 3 부 |    | 7/16~18 | 행함이 있는 믿음의 어린이       | 약2:22    | 400장          | 최지혜      | 소석관 307호     |
| 초 등 4 부 |    | 7/16~18 | 용서의 생활               | 렘4:32    | 278장          | 장혜순      | 소석관 407호     |
| 초 등 5 부 |    | 7/16~18 | 용서의 생활               | 잠19:11   | 184장          | 배옥인      | 소석관 414호     |
| 초 등 6 부 |    | 7/22~24 | 용서와 화평의 신앙생활         | 고후5:20   | 278장          | 정기봉      | 충현기도원        |
| 중 등 1 부 |    | 7/18~20 |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자        | 마26:39   | 506장          | 김찬관      | 충현기도원        |
| 중 등 2 부 |    | 7/15~18 |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자        | 골3:1     | 493장          | 안경소      | 충현기도원        |
| 중 등 3 부 |    | 7/22~25 | 너는 내 것이라             | 사43:1    | 354장          | 김광국      | 구국성지기도원      |
| 고 등 부   |    | 7/25~27 | 성숙해져 나아라             | 히6:2     | 506장          | 김영길, 김해규 | 충현기도원        |
| 대 학 부   |    | 7/9~12  |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 약2:22    | 507장          | 송태근      | 충현기도원        |
| 청 년 1 부 |    | 8/2~3   |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 요21:16   | 303장          | 김찬관      | 충현기도원        |
| 청 년 2 부 |    | 7/15~17 | 내뱀 속에 생기를 두리니 살리라    | 렘37:6    | 172장          | 김양홍      | 고양군수양관       |
| 청 년 3 부 |    | 7/16~17 | 행명과 경건               | 골후1:3    | 319장          | 김창수      | 충현기도원        |
| 장 년 1 부 |    | 8/14~15 | 부름에 합당한 교제           | 렘4:1~3   | 527장          | 이조웅      | 소석관 201호     |
| 장 년 2 부 |    | 8/16~17 | 순례자의 여정              | 히11:8    | 434장          | 송태근      | 충현기도원        |
| 장 년 3 부 |    | 7/8~9   | 성령충만을 받으라            | 렘5:18    | 278장          | 권성수      | 수원합동신학교      |
| 장 년 4 부 |    | 8/15~16 | 꽃은 선자가 아닌 광성향 선자가 되자 | 렘4:15    | 506장          | 김양홍      | 갈릴리홀         |
| 소 망 부   |    | 8/22~23 | 독수리 같이               | 사40:31   | 394장          | 김양홍      | 갈릴리홀         |
| 새 가 정부  |    | 6. 6    | 건강한 가정               | 골3:16~21 | 399장          | 최인근      | 충현기도원        |
| 에바다부    | 학생 | 7/25~27 | 하나님 나라               | 마7:21    | 284장          | 김성윤      | 충현기도원        |
|         | 성인 | 8/14~15 | 하나님 나라               | 마7:21    | 284장          | 김성윤      | 충현기도원        |
| 사 랑 부   |    | 7/17    | 하나님이 나를 제으셨어요        | 창1:26    | 301장          | 이흥영      | 사랑부실         |

## 오늘은 맥추감사절 저녁7시 감사예배 드려

오늘은 맥추감사절이다. 전 세계 교회가 이날을 지켜 넘겨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 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만 가지 은혜와 사랑으로 풍족한 생활의 여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I, II, III, IV부 예배 시간에 특별

감사헌금을 드리게 된다.

또한 저녁 7시 찬양예배 때에는 영아부 어린이들이 충현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찬양을 드리며 영광돌리는 시간도 갖는다.

## 오늘 저녁 7시 70인전도대 수료식

오늘 저녁 7시 찬양예배 시간에 70인전도대 수료식이 있다. 연인원 374명이 훈련에 참가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사역에 헌신, 봉사할 정예대로 양육되어, 오늘 수료식에서 대장 이종윤 위임목사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앞으로 이들은 하기 놓여준 전도 등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민족 복음화의 최일선에서 사명을 수행해나가게 될 것이다.

## 인 사 이 동

교회는 지난 7월 1일 열렸던 정기당회에서 배옥인 전도사를 초빙하여 5부 지도로, 선표근 목사를 찬양위원회의 지도로, 정경자 권사를 배들레헴찬양대 지휘자로 임명하였다.

## 충현 제1동산→제2동산 이장비 조정

앞으로는 충현 제1동산(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소재)에 매장된 묘를 충현 제2동산(경기도 광주군 목현리 소재)으로 이장할 때 70만원의 이장비를 성도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6월 10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관리비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부득이한 부담금 제정정에 따른 것이다.

## 주차시 질서를 지킵시다



&gt;제4차 흥해작전 새벽기도회 설교 요지&lt;



# 야고보서강해 (6)

이 중 윤 위임목사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표준이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최고의 법입니다.

로마인들은 왕이 법을 제정한다고 하여 왕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선 성경을 최고의 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각종의 성문법, 자연법, 양심법이 있으나, 우리들은 성경을 최고의 법으로 알고 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의 명령,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이 약 4천번 이상 나옵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는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하면서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서신들이 나오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고전14:37; 벧후3:2).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지켜야 할 여러가지 법이 있으나 하나님의 법, 즉 신구약성경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고 우선시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성경이 왜 왕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주제가 왕적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식 수준이나 종교 경험에 어

## 제7일

## 법과 은혜

(약2:8~11)

떠하든지간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신자들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갈3:24). 또한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계속 좇아 제자로서 살아가게 합니다(요5:39). 성경을 읽으므로 왕을 알게 되고 따라 가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둘째, 성경의 기준이 왕적입니다. 성경은 왕 중에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은 모든 법의 모법(母法)입니다. 성경은 천국시민의 대헌장이며,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받은 자는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기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

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만을 최고의 법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나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한 것은 십계명 전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야고보는 천국시민은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를 팔시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최고의 법 중 이웃 사랑을 한 예로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질서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최란 표적에서 벗어 나가나 정해진 선(line)을 밟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저주의 대상이므로 결코 범해서는 안됩니다. 하

나님께서 작은 죄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약2:10). 하나님의 율법은 실제적이고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가지 죄라도 소홀히 취급하면 안됩니다(갈3:10).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자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자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친 자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율법에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나 칭의가 어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빌3:9). 그러므로 이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받은 자에게는 새로운 은혜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의 값을 그리스도가 지불하심으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은혜절차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법을 어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란 용서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용서는 구원의 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으나 용서받는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용서받은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날에는 말씀을 통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의 “심판 받을 자처럼”이란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8:1)는 말씀을 읽고 성도에게 절대로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25:31이하; 롬14:10).

마지막 심판에 대한 증언을 듣고 불신자들은 불신자들대로, 신자들은 신자들대로 심판이 면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 제8일

## 심 판

(약2:12, 13)

과거, 현재, 미래에 행한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우리들이 행한 대로 마지막날에 심판하십니다(시10:11, 13; 전3:15; 히4:13). 하나님께서는 마지막날에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십니다(고후5:10). 성도가 천국에 가는 것이 심판 때문에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천국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약2:5). 그러나 심판날에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재질을 하십니다(고전3:12).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약2:12).

또한 우리들은 마지막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심판의 기준이 이처럼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우리들은 확실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롬3:20). 그런데 우리들은 율법의 파멸과 끝이 되지며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롬10:2절이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자가 됩니다(갈3:13).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대 생명이 되었으며, 그가 지옥에 가심으로

내가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율법의 강요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종교는 형식과 율례와 의식에 지우친 종교였으나, 지금까지의 종교는 우리의 중심과 생명을 파치는 종교로 변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우리들은 책임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나오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말씀은 종말론적 생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마12:36) 행동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8) 하나님께서 마지막날 심판하실 때 양면으로 나타납니다. “공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물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약2: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롬11:22)



## 교육의 현장

## 배가 부흥 이룩한 영어교육부

세계를 교구로 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세계 선교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학교 부서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번 주 주간총회는 이 중 하나인 영어교육부(부장 박용삼 장로, 지도 마일수 목사)를 찾아보았다.

현재 모두 9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어교육부는 여러 사람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작년 까지만 해도 50여명에 불과했던 영어교육부는 금년 들어서 한 주 평균 120여명이 출석하며 신앙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영어교육부가 부흥할 수 있었던 데에는

훌륭한 교사들의 노력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는 주일마다 기타 반주에 맞춰 영어찬송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림을 이용한 교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또 중등부 이상의 회원들은 집중적으로 성경을 연구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밖으로 널리 퍼져, 총회교회 영어예배와 영어교육부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 영어교육부에서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과 외국에 장기 체류하다 귀국한 한국인들이 참석하면서 영성 훈련과 말씀 연

구와 영적 교제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부장 박용삼 장로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교회 3대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영어교육부는 한국에 체류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총회 성도들에게는 영어에 배와 영어 성경연구를 피부로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 ◆ 영어교육부

집회시간 :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 반               | 나이    | 장 소      |
|-----------------|-------|----------|
| 유치원 · 국민학교1·2학년 | 5~7   | 선교관405호  |
| 국민학교3·4학년       | 8~9   |          |
| 국민학교5·6학년       | 10~12 | 본당109호   |
| 중등부 · 고등부       | 13~18 | 선교관402호  |
| 대학부             |       | 선교관401호  |
| 성인반(영어반)        |       | 선교관403호  |
| 성인반(시온찬양대)      |       | 본당지하101호 |

청년1부  
초청 전도 집회 개최

청년1부(부장 박승준 장로, 지도 김찬곤 목사)가 그 동안 준비해왔던 산들초청전도집회가 드디어 오늘 개최된다.

청년1부는 이 집회를 위하여 그 동안 공동기도 제목을 정하여 준비 기도회를 가져왔고, 6월에는 떡섬으로 노방전도도 다녀왔으며 초청장도 발송했었다.

태신자와 동문도 함께 참석하게 되는 이 집회는 찬양과 예배, 환영의 순서로 진행되며, 공동체 훈련, 케익 점화, 축시 낭송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선보이게 된다.

## 원 고 모 집

주간총회는 총현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은 원고를 기다립니다.

종류 : 간증문, 시, 수필, 제언, 미담 등

원고량 : 2백자 원고지

9~10매

제출처 : 소석관 103호

결혼하면 남편이 나만 사랑해주는 줄로만 알았던 나는 결혼 생활에 대한 꿈과 포부가 무척이나 컸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내가 꿈꾸가 아니며 대접만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헌신과 희생과 끝없는 인내가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다.

하루종일 남편만을 생각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퇴근하자마자 돌아와야 할 남편이 매번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그렇게되자 나는 ‘이럴 바에 왜 결혼을 했나, 이것이 결혼생활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날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어 참기로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집에만 갇힌 나는 다시 몸을 생각에 사로잡혔다. ‘남편이 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남편이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저런 생각에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남편에게 갖은 꾸밈을 퍼붓고 포악하게 대했다. 심지어는 미워지기까지하여 말다툼이 잦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며칠씩 남편과 말도 하지 않으면서 지내기도 했다. 이런 저런 술한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끝내는 남편을 무시하며 욕을 퍼붓게까지 되었다.

그러다가 1년 후 아이를 낳았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아이에게 쏟아놓는 아주 못된 엄마가 되었고, 남편에게는 더욱 포악한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 남편은 밤늦은 시간을 술집에서 보내며

## 간증

##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

김 영 구 집사  
(70인전도대대원)

어둠 속에 생활하였다.

그런 어둠과 우울한 생활을 하던 중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었다. 어린 시절 교회에 가본 적이 있었지만 집사님의 간증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다. 겉으로는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노력하고 애쓰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웃긴다. 라고 비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집사님을 욕했었다. 그 당시 남편의 사업은 부진해 있었고 내 몸은 약할 대로 약해 있었다. 살림을 하거나 아이를 돌보다가도 그냥 주저앉거나 눈가가 일쑤였다. 게다가 술 좋아하는 남편과 평생 같이 살 것을 생각하니 낙심과 절망의 숨소리는 더해진 것 같고, 평생을 병든 몸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러던 중 그 집사님의 계속적인 권유로 총현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시간시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좋았다. 그래서 주일예배와 구역

예배는 물론, 성경 공부까지 열심히 다녔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은 꾀박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미쳤다고 하면서 교회 갔다오면 문도 제대로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난 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남편 몰래 지하실에 가서, 부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신앙 생활을 했다.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금식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우리집 부자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친구들에게 흉을 보셨다. 남편은 내가 기독교방송을 듣고 있으면 라디오를 끄고 코드를 빼놓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심지어 밥을 풀 때도 남편이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한 빨래를 할 때도 옷의 때가 씻겨 나가듯이 남편도 용서받고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했으며, 남편의 구두를 신고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주님, 남편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남편이 스스로 이 신발을 신고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라며 간구하였다. 영적으로 과부인 나는 교회에서 한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다.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해 주께로 돌아 올 것 같아, 늦게 돌아오는 남편이 싫지만 반갑게 맞았다. 계속되는 꾀박 중에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

차츰 남편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내가 기독교방송을 즐겨 들어 라디오를 부엌으로, 방으로, 마당으로, 목욕탕으로 끌고다니는 모습을 보던 남편은 라디오와 찬송대원을 사다주었다. 교회 갈 시간이 늦으면 차로 태워다주기까지 하더니 드디어 내 생일에 교회에 등록하였다. 지금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주일예배는 물론 전도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싫어지고 속에서 팔지 않는단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다.

나는 이런 신앙의 역경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길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

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진리를 알았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까이 하며 괴로울 때, 속상할 때, 곤고할 때, 꾀박당할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었다. 또한 참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상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붙들어주신다는 것도 체험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전철에서나, 버스안에서나 전도를 한다. 외출할 때는 언제나 가방 속에 전도지를 가지고 다닌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나는 어둠에서 빛의 생명을 얻어 기뻐할 수가 있게 되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전도하게 되었으며, 미움으로 가득찼던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했고, 원망과 불평이 넘치던 입술이 감사할 조건을 찾아 찬송하게 되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소망중에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나와 내 가족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내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깊이 확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 선교지 소식 - 칠레

# 교회 개척에 전념



지난 81년 칠레 선교사로서 파송장을 받은 유재일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완수키 위하여 오늘도 이국 만리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다.

유 선교사는 전 국민의 88퍼센트가 가톨릭교를 믿고 있는 칠레에서 현지인들의 복음화와 신앙 성숙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척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암송대회와 가족찬양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학원 선교를 전개하고 성경대학을 운영하는 등 칠레인 목회자 훈련과 지도자 양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주는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부랑자들과 극빈 아동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다.

## 기도제목

1. 개척교회를 통해 칠레의 복음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 현지인 목회자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3. 유재일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 제1회 한, 일, 미 기독교청년미래지도자대회 준비위원회 가동

제1회 한·일·미 기독교청년미래지도자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 책임을 맡은 성도들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 봉사할 것을 바라고 있다.

대 회 장 : 이종윤 위임목사      본부위원(장로) : 김영개, 김차쟁, 오진국, 이병학, 하대선, 윤인현, 최대원, 박승준, 강은원, 오정현, 이 훈, 송환창, 박철훈, 박용삼, 김천채, 오정수, 김재명, 김광남, 이종석, 이종국

부 대 회 장 : 윤명식 장로      이시카와 켄오지

준비위원장 : 이영세 장로

지 도 : 김학진 목사      마일수 목사      심길웅 목사

| 분과명         | 분과장         | 지 도         | 실 무 위 원           | 봉 사 위 원                     | 협 조 부 서             | 비 고                  |
|-------------|-------------|-------------|-------------------|-----------------------------|---------------------|----------------------|
| 기 획 분 과     | 하대선 이 훈     | 김학진 마일수 심길웅 | 송원석, 최은희 홍인석      | 이상석, 안석현, 장철환 김용진           | 기획조정실 세계선교위원회 사 무 국 |                      |
| 진 행 분 과     | 이병학 이종국     | 일본, 목사 미국   | 정병국, 이준경 권세숙      | 박문태, 조혜순, 조남숙 백옥심, 강동화, 전승훈 | 기획조정실 세계선교위원회, 사무국  |                      |
| 예 배 분 과     | 김재명         | 윤용규         |                   | 예 배 위 원                     | 예배위원회               |                      |
| 동원 1 분 과    | 노광현         | 최인근         |                   | 각 교구장 및 지역장                 | 교구위원회               | VISION 2000년 참모부로 이관 |
| 동원 2 분 과    | 박승준 강은원 최대원 |             | 정홍식, 윤봉준 황의만, 김환기 | 노영현, 윤석산, 이기성 유호순           | 대 학 부 청년1, 2, 3부    |                      |
| 홍 보 분 과     | 오정수         | 김해규         | 최낙은, 김상봉 김미정      | 이승철, 김 신, 허명호 박은경, 이종희      | 홍 보 실               |                      |
| 영 집 분 과     | 송환창 박용삼     | 김창수         |                   | 오미자, 김연근, 김광호 이진모, 이 훈      | 세계선교위원회 영어·일어예배부    |                      |
| 등록 및 숙박 분 과 | 박철훈 김천채     | 김환근         | 임영호, 송윤경          | 이하영, 우지원, 이호연 심현경           | 세계선교위원회 영어·일어예배부    |                      |
| 봉사 및 식사 분 과 | 오진국         |             |                   | 박정순, 남정애, 이인선 이정애, 여진도희     | 여전도회연합회             |                      |
| 시설 분 과      | 오정현         |             |                   | 김춘권                         | 관 리 국               |                      |
| 차 량 분 과     | 박치민         | 신표근         |                   | 차량관리실 요원                    | 관 리 국               | VISION 2000년 참모부로 이관 |
| 의 료 분 과     | 이종석         |             |                   | 손 철, 박종현                    | 의료전도회               |                      |
| 재 정 분 과     | 김광남         |             |                   |                             | 재정위원회               |                      |

## 요한전도회 제15지회 사랑의 집 건축헌금

지난 6월 22일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있었던 요한전도회 제15지회(회장 이상해 집사)의 월례회 및 가족 동반 친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회원 중 한 성도가 서류봉투를 나무 밑에 놓아둔 채,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뒷정리를 하면서 그 안에 넣어둔 돈이 분실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불미스런 소식을 전해들은 회원들은 작은 정성을 모아 다음날 그 회원에게 전달하였다.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원들의 사랑을 받은 그 회원은 자신의 물질을 더하여,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회원들과 의논한 끝에, 사랑의 집 건축헌금으로 드렸다.

## 에바다부 성인반 14일에 성경퀴즈대회

에바다부(부장 조인제 장로, 지도 김성윤 목사, 부지도 임태주 전도사) 성인반은 오는 14일(주일) 성경퀴즈대회를 개최한다.

회원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고자 마련된 이 행사는 성경에 관련된 지식을 테스트할 뿐 아니라, 회원 간에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독자의 난

## 더욱 많이 주시는 하나님

권 영 학 집사(장년1부 교사)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욕망과 허영심, 죄와 더불어 정욕과 자신의 교만으로 살았다.

○○산업 영업부장 H씨가 목사님이 되어서 개척교회를 설립하니 한 자리 채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리 부부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72년 2월 봉제 공장을 설립하면서 상호를 무엇이라고 할지 그 목사님께 부탁하였더니 우수사(右手社)라고 지어주었다. 한글로는 우수한 회사이고 성경적으로는 시편 118편 16절과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회사 경영을 하다보면 어렵고 힘들 때 좌절이나 낙심 말고 항상 이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였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잘 되었는데 1년, 2년이 지날수록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 임금이 몇 달 치씩 체불되었고, 직원들에게 나누어줄 양식까지 모두 떨어지게 되었다. 너무 형편이 어려워지니 다니던 교회도 잘 다니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까운 충현교회로 인도하셨다.

83년도에 성전건축을 위한 작정헌금을 위해 김창인 목사님께서 어려운 성도는 자리값이라도 이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3백만원을 작정하였다. 그때 형편으로는 감히 엄두도 못낼 금액을 작정한 것이었다. 예금할 돈이 없어 예금통장도 없었고 공장 한 모퉁이에 합판으로 칸막이 하여 사원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지냈다. 정말 당시의 생활은 고달프기만 하였다. 한 달에 한 번 수급하여 직원들의 월급을 떼고, 십

일조와 건축헌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회사 운영비가 없어서 비싼 이자를 차용할 땐 공장임대계약서나 기계류를 법원에 공증하였다.

다른 사람이 볼 땐 몇 일 안가서 회사가 망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으며 기도를 하다보면 나는 하나님께 잘 한 것도 없고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할 위인도 아닌데 하며 부족한 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주셨다.

어느 주일날 건축헌금을 하려고 하면서 날짜를 보니 건축헌금을 작정한 지 1년되는 날이었고, 헌금액수도 작정한 3백만원이 되어서 너무도 신기하였다. 우리 부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 후 새 성전 완공과 함께 우리 가정을 축복해주셔서 2년 이내에 5천만원이 넘는 빚을 갚게 하시고, 지금은 성동구 광장동 아차산 아래 좋은 장막에서 남을 도와가며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앞으로 우리 가정은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

## 교회 전화번호 변경

교회 전화번호가 7월 3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대표전화 : 552 - 8200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교 회   | 562-4181~3 | 569-9691 ~3 |
|       | 566-8007   | 569-9694    |
|       | 566-5122   | 569-9695    |
| 기획조정실 | 566-6083   | 569-8062    |

## 광야의 소리

◎ ... 오늘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백추감사주일. 그러나 그 내용은 온데 간 데 없고 형식만 겨우 그 명맥을 유지.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 ... 전에는 가슴 설레이며 기다려지던 여름성경학교. 지금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장터에 앉아 있기만 하는 아이들.

◎ ... 빛을 내어서라도 여름휴가는 가고야마는 현대인들. 먹고 마시는 휴가가 아닌 기독교례 저문화를 이찌하고...